

현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¹⁾

Research Strategies for Problems of School Library in Its Present Developmental Stage

김 정 근(Jung-Gun Kim)
김 종 성(Jong-Sung Kim)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2 이야기 판 넓히기 |
| 2. 왜 지금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가? | 3. 3 공동 전선의 구축 |
| 2. 1 교육정보화 바람 | 4.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할 것인가? |
| 2. 2 대학 입시 유형의 변화 | 4. 1 우리 현장에서 건져 올리는 논제 |
| 2. 3 사교육 열풍 | 4. 2 우리 현장의 현단계가 요구하는 연구방법 |
| 2. 4 열린교육과 대안학교의 대두 | 4. 3 논제와 연구방법에 걸맞는 유연한 글쓰기 |
| 2. 5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 5. 나오며 |
| 3.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
| 3. 1 주력부대 | |

초 록

필자들은 왜 지금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해야 하며,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필자들의 강조점은 우리 현장에서 건져 올리는 논제, 우리 현장의 현단계가 요구하는 연구방법, 그리고 논제와 연구방법에 걸맞는 유연한 글쓰기로 모아진다.

ABSTRACT

The Writers explain why we have to talk about school library now, who will be the central forces to talk about school library, and finally how the talk about school library will be formulated. The writers' emphasis is on themes to be chosen, research methods, and writing styles on the part of researchers.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1997년 8월 8일

1) 사실 학교도서관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면이 있다. 이 다양성과 혼란의 원인은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에서 학교도서관을 그 기능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는 데에서 기인할 것이다. 필자들이 판단하기에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함축하고, 현재의 매체 발달단계에 적절한 명칭은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그 명칭에 관한 논의는 논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편의상 '학교도서관'이라고 한다.

1. 들어가며

비교적 최근에 상영된 미국 영화의 몇 장면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해 본다. 먼저 '로렌조 오일(Lorenzo's Oil)'이라는 영화이다. 실화에 근거한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부부는 로렌조라는 자기 아들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아이를 위하여 직접 치료제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관련 연구문헌을 조사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험을 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 장면에서 관객은 정속하면서 편안한 도서관의 내부와 거듭되는 이용자(주인공)의 자료 요구에 금방이라도 화를 내 버릴 것 같지만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 하는 여성 사서를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영화는 '쇼생크 탈출(Shawshank Redemption)'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한 은행원이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 했다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는 악명 높은 교도소에 갇혔다가 탈출하여 자유를 찾는다는 것이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 주인공은 자신의 회계능력을 인정받아 교도소장의 눈에 들고 결국 교도소 도서관을 운영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그는 동료 죄수들과 함께 낙후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정부에 끈질기게 장서기증 의뢰 편지를 보내기도 하며 새로 들어온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분

류하고 정리하는 등 인텔리다운 면모를 보여 준다.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도서관의 책을 감방으로 배달하는 장면과 도서관에 죄수들이 모여 독서하고 음악을 듣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수시로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영화와는 분위기가 다소 다른 '세븐(Seven)'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경찰관인 주인공들은 연쇄살인범을 쫓는 과정에서 범인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해석해 내야 하는 과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 경찰관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다.

위에 소개한 것처럼 서양 영화에서 도서관이나 사서와 관련된 장면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사회에서 도서관이란 바로 생활의 일부라는 것이며 그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포함 된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보는 웅장한 도서관 건물, 지식과 정신을 무한히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서, 그리고 종종 친절한 미국인의 상징으로 선전되기도 하는 사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정작 부러운 것은 가시적인 도서관 그 자체만은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식과 생활에 축적되어 있는 '도서관 현상'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삶의 조건으로 도서관을 생각하는 듯하다. 교도소에도 훌륭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놀랍고 부러운 것은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먼저 도서관으로 달려 간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건 그렇지않은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도서관에 가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도서관에 가면 문제를 풀 수 있으며 혹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먼저 도서관으로 달려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신념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신념을 몸과 마음으로 획득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필자들은 여러가지 의식의 덩어리 속에서 강하게 솟아 올라오는 한 갈래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학교도서관이다. 물론 그들이 생활 속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기관을 인생의 가장 이른 시기에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접하고 받아 들이는 곳은 바로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는 도서관의 뿌리는 바로 학교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다른 어떤 종류의 도서관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상투적인 어법을 피하여 필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시 상투적인 어법이야말로 새겨보면 가장 간명하고

진중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어찌 열정 없이, 신념 없이, 계몽의 의지 없이 동어를 반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필자들은 다시 한번 상투적인 어법을 반복하려고 한다.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절박한 과제라고. 이 땅에 도서관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을 살려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것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을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우리 사회의 참다운 정보화도 그 출발점이 학교도서관이라고.

이와 같은 외침은 분명 상투적이다.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수많은 문헌을 접해보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내용이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외쳐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처연하게 방치되어 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상투적인 외침과 처연한 현장,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이 땅의 학교도서관 연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땅의 학교도서관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가지 의문에 휩싸이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빠지지 않는 교육열을 가진 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은 왜 이리 열악한가. 정부와 교육 현장에서는 입만 열면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학교도서관은 왜 이리 방치되고 있는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에서 학교도서관만은 왜 이리 저발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그

렇다면 학교도서관 없이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도서관 제도가 도입된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학교도서관은 왜 이리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도서관 학이 도입된지 수십 년이 지나고 수십 개의 대학에서 수백 명의 교수와 강사가 도서관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수백명의 석박사 과정의 젊은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천명이 넘는 수의 유자격 사서가 배출되는데 학교도서관은 왜 이리 낙후되어 있는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의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메이게 된다. 그러다가 강단 연구자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문을 던져보게 된다.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문헌들은 왜 현장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가. 그 연구문헌들에 나타나는 시각과 제시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의 방법은 적절한가. 이 땅의 학교도서관 문제를 들추어 내고 해결해 가는 적실한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과 문제 의식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필자들의 뇌리를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문 만큼이나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난해하고 험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오랜 시간동안 의문과 문제의식을 키워 왔지만 막상 필자들 나름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딜레마는 오히려 필자들을 근원적인 의문에서 출발하도록 안내 한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의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리고 그 의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왜 지금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가?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는 이 논문의 연구 방법과 자료 그리고 문체는 일반적으로 연구 논문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그 형식성이 다소 완화되고 유연한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술은 이 논문에서 논구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논제의 성격과 그것을 둘러싼 외부 요소들의 복잡성과 상호 관련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주로 논증적(discursive)인 방법으로 논점을 이끌어가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종합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 논문이나 단행본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기사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한다. 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그 문제의 지형과 깊이를 포괄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과 자료 활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쓰기 스타일도 유연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논문에서 부각

시키려고 하는 논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글쓰기가 요긴하다고 생각한다.²⁾

2. 왜 지금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가?

학교도서관은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육 지원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존립과 흥망은 교육이라는 거대한 상위 영역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교도서관 문제의 복잡성과 거대성이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둘러싼 교육 영역의 상황과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정책,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 교육과 관련있는 사회의 풍조, 교육 관련 법령과 행정적 상황 등 여러가지 환경적 요소를 짚어 보면서 그 변화 양상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의 현재적 맥락속에서 문제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교육의 문제들이 어떤 역학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구

도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해 보는 것은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하는 실제적이며 유용한 길이 될 것이다.

2.1 교육정보화 바람

먼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학교도서관과관련 있는 교육정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3차 교육개혁안³⁾에 따르면 교육개혁의 다섯 가지 영역중 한 영역으로 교육정보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정보화의추진 방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조정한다. 둘째, 교육정보화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한다. 셋째, 교육체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넷째, 인간 중심의 능력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정보화를 추진한다.

이 교육정보화의 방안 가운데 학교도서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은 '학교도서관(실)의 멀티미디어화'이다. 이 항목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을 각종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멀티미디어화된 도

2) 이러한 논문 쓰기 전략은 4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3)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3)', 제4차 대통령 보고서, 1996. 8. 20.

서관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지적 탐험의 장소로 만들고, 학습자 중심의 자주적 학습을 촉진한다. 둘째,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정보를 쉽게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국내외의 대학 및 공공도서관,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다. 셋째, 도서관 소장 자료의 관리와 검색도 컴퓨터화하여 학생들이 교육정보화의 이점과 편리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전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같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육부 교육정보관리국장 밑에 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교육정보자료 담당관을 두어 각급 학교도서관 전산화 및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정부의 개혁안은 일단 무척 고무적인 것으로 환영 받을 만하다. 그러나 환영하는 마음 한 편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감정과 불안이 혼합되어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정부 당국의 교육정보화 방안이 학교도서관을 첨단 정보화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두가지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두가지 요소를 선결하거나 아니면 교육정보화

를 추진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정보화는 허울 좋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두가지는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 체제 확립과 학교도서관의 첨단 정보화를 주도할 사서교사의 확충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정보화는 다분히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는 표피적이고 전시효과적인 면을 강하게 노출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사회의 발전 단계를 밟아 가는 개혁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그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적인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교도서관이 먼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도서관의 현실 위에서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한다면 바지저고리에 구두 신고 발레를 추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개혁 방안의 한 부분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포함시켰다면 늦었지만 단계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경우를 미국이나 영국 등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과정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⁵⁾. 영국의 경우 1888년에 학교도서관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과정의 변화에

4) 관보 제 13354호(1996.7.5). 교육정보자료 담당관은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①교육정보자료의 개발 ②교육정보자료의 표준화 ③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원 ④각급 학교도서관 전산화 및 운영 지원 ⑤간행물 발간의 조정 및 교육종합자료실 운영 ⑥국내외 교육정보 매체 관련 자료의 수집 활용. 현재 교육정보자료담당관실에는 교육행정사무관 1인과 사서(7급) 1인이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요약 인용한 것이다. 이원영, "열린 교육의 열쇠", 한국교육신문, 1996.5.22.

대처하기 위해 학습자료센터로서의 학교 도서관을 확대하였다. 그 뒤 1972년에서야 학교도서관에 각종 시청각 자료까지 포함 하도록 하였고 1988년에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58년 연방기금으로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설비를 강화 하였고 1965년에는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 기회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도서관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위해 엄청난 돈을 국가가 투자 하였다. 그 뒤 1993년 이래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학습자들에게 정보 기법을 교육하는 등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에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멀티미디어화 하여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것을 주도할 매체전문직 또는 현행 법상의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학교에 사서교사 또는 매체전문직이 각 학교마다 최소한 1명 이상 배치되어 있어 각종 수업 자료의 개발과 교사의 수업 준비를 도와 주도록 한지가 백년이 넘었다⁶⁾. 그리고 교육개혁안에서 열린 교육,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과 음성정보시스템 교육, 원격 화상 교육 등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 이야기만 하면서 교육자료 개발과 그것을 담당할

전문직의 배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학교도서관을 주목한 해안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진정한 학교도서관의 가치와 의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보화의 실정인 듯하다.

정부 주도의 교육정보화와는 별개로 혹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가운데 언론과 기업에서 조장하고 주도하는 교육정보화 바람 또한 학교도서관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이 바람은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교육정보화의 전부인양 강하게 우리 사회를 몰아치고 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그 바람이 다소 누그러뜨려진 면이 있지만 이러한 바람의 여파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을 통한 자료와 정보활용 교육의 맛을 보여 주지도 못한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신기하고 새로운 첨단 기계를 안겨 주는 것은 학교도서관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격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부적당하다고 하여 금

6) 김종석, "수업개선 도울 매체전문직 필요", 한국교육신문, 1996.10.30.

7)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교육정보화 바람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를 대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자료를 소개해 본다.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거품 지나치다", 뉴스플러스(1996.5.9), 26-31쪽; 이규역, "시평-멀어져가는 정보화", 한겨레신문, 1996.5.4; 손병길, "교육을 생각하며-교육정보화의 바른길", 한겨레신문, 1996.5.27; 조환규, "책과의 대화-클리포드 스톨의 <허풍떠는 인터넷>", 부대신문, 1996.6.10; 조환규, "연필과 컴퓨터", 녹색평론 제28호(1996.5-6), 20-27쪽; 조환규, "인터넷과 기술의 남용-무엇이 살아 있는 교육인가", 교수신문, 1996.5.9.; "대학정론-우려되는 정보화 거품", 교수신문, 1996.6.17; "기획특집:정보화운동의 거품 현상을 우려한다", 교수신문, 1996.7.1; 이상현,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익사하지 않으려면", 말 1996년 8월, 224-228 쪽.

지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교육정보화의 바람 속에서도 학교도서관은 다시 한번 생존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상황이다⁷⁾. 이처럼 교육정보화 담론은 그것이 정부에 의한 것이든 민간에 의한 것이든 간에 무척 현란한 수사와 환상적인 논리로 치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학교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고 있는 양상 또한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바람은 학교도서관을 세우려는 입장에서는 위기의 담론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담론이기도 하다. 이 변화의 담론 양상 속에 지금 이 땅의 학교도서관은 서 있는 것이다.

2. 2 대학 입시 유형의 변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초·중등 교육 문제는 대입시험 제도만 개선되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극언하기도 한다. 그 만큼 우리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며 대입시험의 유형이 교육 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경쟁적인 대학입시 체제하에서 학교는 정규 수업도 모자라 보충수업,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교실에 가두어 두고 학교 밖에서는 과외다 학원 수강이다 하여 온통 입시의 성공을 위하여 교육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아래에서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것은 나무 아래서 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과 주입식 수업 방법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입시 유형의 변화는 잠들어 있는 학교도서관의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기미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있다.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으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객관식 학력고사가 종합적인 사고와 통합교과적인 학습에 의해서 풀 수 있는 수능체제로 전환 되었으며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논술시험의 비중을 강화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1996년 11월 13일 시행된 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것은 학원이나 과외교사 등 사교육 쪽에도 마찬가지였다⁸⁾.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모두 이번 수능시험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능시험 총괄 책임자는 '쪽집게식 찍기 학습은 원천적으로 몰아내겠다는 기본 방향이었다. 여러 분야의 많은 책을 읽고 세상사에 관심을 갖는게 오히려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변화 국면에서 일선 학교의

8) <한겨레 창-열린공동체>, 암기-찍기교육 '수능에 무능', 한겨레신문, 1996.11.22.

교사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해 보지만 역부족임을 느끼며 당혹해하고 있다. 그리고 과외 만능이라 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과외 시장도 이 수능체제에서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수능이 어느 정도 공·사교육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이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해야 할 학교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밝은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걀을 깨놓긴 했는데 조리할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 이를 썩혀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⁹⁾

여기에 추가하여 논술시험이라는 요인도 만만치가 않다. 단순한 글쓰기의 차원을 넘어서 창의력과 이해력 등 종합적 사고력 측정을 지향하는 논술시험은 학교교육 현장을 변화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벼락치기나 암기식 학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논술시험의 난관 앞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탐구식,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뒷받침해줘야 논술시험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교육 전반이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¹⁰⁾.

수능시험과 논술고사로 대표되는 대학 입시의 변화 양상은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 선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현장의 개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지향은 있으나 적실한 실천 방안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 연결 고리를 학교도서관이 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실에서 통합 교과적인 수업을 시행해 줄 것이며 어느 교사가 매양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창의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서관에서의 자유로운 독서 이외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단 말인가. 쪽집게 과외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토론식 수업, 문제 탐구식 수업이 도서관 자료의 지원 없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수능시험과 논술시험 앞에서 당혹해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해법은 현재로서는 학교도서관 뿐이다. 방향은 바로 틀어 쥐었으나 교육 현장을 지도할 후속조치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교육 당국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학교도서관이다. 이 입시 개혁의 분위기야말로 학교도서관을 살리기에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매년 입시철이면 수석 합격자의 단골 레퍼터리로 등장하는 ‘교과서 위주로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는 말 대신에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학습과 독서에 충실했다’라는 소감을 머리 속에 그려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일까.

9) 위의 기사

10) 《한겨레 창-책과 사람》, 논술시험, 철학이 없다, 한겨레신문, 1997.1.14.

2. 3 사교육 열풍

교육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반드시 공교육을 위협하게 될뿐만아니라 그 현상 자체가 공교육의 부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며 문제로 꼽히는 것은 공교육을 압도하는 사교육의 보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민들이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출하는 사교육비 총액은 국가 전체의 공교육비를 초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5월 11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전국의 초중고생,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을 상대로 '과외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년 동안 초중고생들의 과외비 지출 총액은 국민총생산의 2.2%, 전체교육예산의 51%에 해당하는 9조 4천 3백억원에 이르며 여기에 취학전 아동과 재수생의 과외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과외비 규모는 14-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¹¹⁾. 한편 소비자보호원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11조 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체 소득의 8.9%에 해당하는 18만 3천원에 이른다고

보고하기도 한다¹²⁾.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6년 4월 한달 동안 서울 시내 중고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원 수강과 개인 과외 등 사교육에 들인 비용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¹³⁾.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가 한해 5천 1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⁴⁾. 이 사교육비 규모는 부산시 교육청의 연간 예산 9천 7백 78억원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 예산 3천 1백 82억원의 1.6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기사의옆에는 사교육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30대 가정이 자살 했다는 짧은 기사가 곁들여져 있다.

대구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교육비가 가계 지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 조사에 따르면 공교육비의 비율은 전체 소비 지출의 10.2%에 그친 반면 과외 등 사교육비는 14.2%를 기록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1997년 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교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전국에서 영어 과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이 53만여명에 이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사교육비가 3천 5백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가히 과외 천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11) "올 과외비 무려 15조원", 한겨레신문, 1997.5.12

12) "올 사교육비 11조 9천억 추정... 가구당 월 18만 3천원", 한겨레신문, 1997.5.19

14) "부산 사교육비 한해 5千億", 부산일보, 1996.4.25.

15) 정영숙,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소비자학연구, 3권 2호(1992.11), pp.1-14.

16) "초등생 영어과외 53만명이 받는다", 한겨레신문, 1996.9.22.

정도이다. 최근에는 수능시험과 논술시험에 대비하여 고액 쪽집게 과외가 등장하기도 하고, 아이큐 테스트를 통하여 일반 제도를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자 여기 저기서 아이큐 테스트에 대비한 과외까지 등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교육 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사교육이 정작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교육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 가운데 2명중 1명 가량이 과외를 받고 있지만 과외 공부와 학업 성취도간 상관 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처럼 실제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현상이야말로 우리 교육 현장의 파행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교육계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12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외비 절감 대책'에는 단기 대책으로 위성 과외 실시,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불법고액과외 단속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중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 과외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¹⁸⁾. 이처럼 본질적인 해결책 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 당국은 과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사명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학자들은 이제 사교육에 대해 공교육이 가지는 상대적인 우위는 교사의 신분 보장과 사회에서 인정하는 졸업장 밖에 남지 않았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이 사교육 만능의 풍조는 탈학교, 탈교실, 탈교사의 현상으로 교육 현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은 공공재로서 교육의 권한과 책무를 희석시키게 된다. 이 사교육 우위의 교육 풍토 개선을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위주의 일방통행식 수업이라는 고질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사교육이 따라올 수 없는 공교육만의 장점을 살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풍부한 교사 인력과 각종 지원 시설과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시행될 때 사교육에 빼앗긴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쇄신 작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학교도서관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자료와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지원할 때 교사 중심의 입체적인 교실이 가

17) “課外-성적 비례 안한다”, 중앙일보, 1996.1.10.

18) “교육부 ‘과외비 절감 대책’ 의미-근본 치료 외면한 ‘현실방치론’”; “‘탁상공론’ 과외비 대책(사설)” 한겨레신문, 1997.5.13.

능하게 되고 나아가 사교육이 할 수 없는 공교육의 영역을 틈틈히 할 수있을 것이다.

2. 4 열린교육과 대안학교의 대두

최근 학교와 교실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보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일고 있다. 열린교육과 대안학교 운동으로 총칭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제도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기도 하고 그 체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법에 따라 시행되기도 한다.

열린교육의 경우 주로 기존의 학교에서 시도되는 교수방법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방법에서 탈피, 학생 스스로가 학습 목표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열린 공간(open space), 열린 마음(open mind), 열린 시간(open time), 열린 교과(open curriculum)를 골자로 하는 이 열린교육은 사교육을 대신하는 특별활동 수업에도 적합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²⁰⁾. 대안학교의 이름으로 시도되는 실험적인 교육 체제는 숨막히는 입시경쟁 때문에 획일적 주입식 교육이 판치는 제도교육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변산공동체학교, 간디학교, 민들레학교, 풀무학교, 성지학교 등 이미 일반인들

의 귀에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정도로 대안학교의 실험적인 성격은 주목을 받기도 한다²¹⁾.

열린교육과 대안학교는 그 성격과 방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제도교육이 가지는 경쟁적이고 경직된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실험교육이 동일하게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과 탐구중심의 교육, 그리고 교실과 교과서를 뛰어 넘는 자연 친화 교육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참교육이라는 큰 지향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기존 교육계의 주류로 정착하지 못하고 제도교육의 외곽이나 예외적인 환경 조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며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교육의 지향이 제도교육의 주류로 정착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제도교육의 현장에서 열린교육과 대안학교에서 지향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 운영자와 교사, 교실의 구조, 교과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함께 어쩌면 더 핵심적으로 열린교육과 대안학교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절실한 것은 학교도서관이 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이 본질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에야

19) "스스로 공부하는 '열린교육' 흥미", 부산매일신문, 1995.12.28.

20) 위의 기사: "교육초점: 공부+놀이= 열린교육, '달헌교실'에 새바람", 한겨레신문, 1994.11.8.

21) "학교교육 영증 '대안학교' 는다- 획일적 주입식 벗어나 참 삶 배움터 마련", 중앙일보 1996.5.19.

이러한 실험적인 참교육 운동이 주류적인 경향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접해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하곤 한다. 수업과 각종 행정 업무의 부담에 추가하여 이제는 열린 교육을 위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훨씬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린교육의 실시는 시간적으로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교사의 능력 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한다. 열린 교육을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담당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모든 자료와 매체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며 능률적이지도 않은 처사다. 열린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각종 매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의 몫이다. 교과담당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사서교사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열린교육의 본래 취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2. 5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최근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우리 학계와 도서관계에 무척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서교사를 교사 정원으로 들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일이다²²⁾. 과거에는 사서교사가 전체 교사 정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학교장의 입장에서 사서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호교사와 같이 사서교사도 학급수에 따른 교사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정원으로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다른 교사 정원에 대한 부담 없이 사서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치의 위력은 대단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보임 문제보다 훨씬 큰 도서관계의 사건이라고도 한다²³⁾. 산술적으로 보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채용한다면 약 만명이 넘는 사서교사가 필요하게 되고 이 인원은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을 10년 동안 취업시킬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그러나 마냥 낙관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법시행령의 조항이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들수 있다'라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규정에서라도 의무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각 시 도 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22) 대통령령 제15299호(1997.2.28)를 통해 교육법시행령에 사서교사를 일반 교사 정원에 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이덕주, "사서교사 배치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 해설", 도서관계 1997년 3월, 28-30쪽.

볼 수 있지만 학계와 관계의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투여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임에 틀림 없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에 대한 법규 조항의 개선을 통하여 미세하나마 학교도서관을 둘러 싸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우연히 이런 조치가 단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적으로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활용이 많아진 것을 주요한 한가지 변화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에 멀티미디어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사서교사라는 존재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열린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한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 교육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방편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변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학교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역할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변화의 와중에서 낙관적인 기대감에 파묻혀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동하여 방향을 제시하

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변화의 상황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호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섯가지 경향 이외에도 학교도서관과 관련지을 수 있는 교육환경의 문제와 변화는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중요한 요소들간의 역학 관계속에 학교도서관은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움직임 속에 학교도서관은 서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 현장에서 여러가지 요소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면 그것은 오로지 학교도서관을 좁은 안목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지만 학교도서관이 폭넓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학교도서관 문제를 교육이라는 복합적인 구조에 올려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는 주체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3.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교육개혁이 정부의 시책중 하나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한 담론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 면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는 별도로 지난 80년대 말부터 교육현장에 있는 일부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우리 사회의 무거운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전교조운동 또한 교육문제를 가장 일상적인 담론의 하나로 끌어 올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 제도와 교육 현장, 입시 제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물밀듯이 터져나오게 되었다. 교육학자, 일선 교사, 교육 행정가, 정치가, 일반 시민 등 누구나 교육 문제를 이야기 하고 울분을 토하며 나름대로의 진단과 처방을 내어 놓는다. 방송의 대담프로에서는 앞다투어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육 문제를 심층적으로 기획하고 보도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외국의 교육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하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한다. 각종 교육전문지 뿐만 아니라 시사 잡지, 일간지까지 교육 문제를 비일비재하게 취급하며 교육 문제를 위해 고정적인 지면을 할애하는 매체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기가 교육개혁의 화신이라도 되는 양 열을 올리며 이야기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내어 놓는 교육개혁의 큰 줄기가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대담프로를 보든 신문의 대담 기사를 보든, 기고문을 보든 대체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인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말 희망적이게도 그들은 모두 건강한 현실 진단과 대안을 내어 놓

는다. 교과서와 참고서에 의지하여 교사의 입심만 가지고 행해지는 지금의 평면적이고 일방통행식의 수업으로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을 길러 내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는, 따라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독서를 풍부하게 하는 토론식, 문제 탐구식 수업을 유도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한다. 얼마나 희망적이며 바람직한 전망인가. 얼마나 건강하며 정확한 해결 방안인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나타난다.

고명한 교육학자들도, 유명한 교육 전문가 정치가들도, 경험 많은 교육 행정가들도, 심지어는 의식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까지도 그 다음의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풍부한 독서를 유도하는 학습, 토론식 수업, 문제 탐구식 수업,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등의 담론을 앞다투어 제시하면서도 누구 한사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노우 하우, 또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러한 바람직하고 건전한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교육 지원 센터인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텔레비전의 대담프로나 신문, 잡지의 기사를 끝까지 주목해 본다. 그러나 역시 학교도서관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곳은 없다. 내노라 하는 이 나라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도서관이라는 해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마치 북

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정확한 해법에 의해 여러개의 복잡한 공식을 활용하여 풀어 가다가 마지막 단계의 간단한 변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틀려 버리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입술이 부르도록 교육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입도 병긋하지 않는다. 그런 하찮은 것은 자기들이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학교도서관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하면 고매한 교육 전문가의 명예에 먹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전교조와 같은 참교육 운동 단체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운동 인자들이 모두 현장 교사들이라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전교조 운동 과정에서 천명된 개혁의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전교조 운동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그들 나름대로 존립 자체를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운동이 지향하는 방향의 울퉁음과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개혁하고자 들고 일어난 결기의 강도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에 편승하여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더구나 3대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한 정해숙 위원장이 사서교

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대는 더욱 더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아직은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지 않는 듯하다.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머리 속에는 있는데 다른 시급한 과제들 때문에 미처 이야기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다만 지난 3월7대 전교조 위원장에 선출된 김귀식 교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향후에는 다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는 과거 전교조가 노조 합법화에 치중하다 보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시인하면서 학생을 위한 전교조를 지향하고 전교조 활동을 '학교현장 지원체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다²⁴⁾. 수능이 도입되기 전부터 '통합교과' 전문가로 불렸다는 그는 '참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교육비전 2000 연구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의 미래상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내용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변화는 분명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조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교육개혁의 분위기와 참교육 운동, 그 와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이 자리를 차지할 담론의 공간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들은 교육과 교실과 교사를 이야기할 뿐 학교도서관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

24) "학생 위한 전교조로 거듭날 터-한겨레가 만난 사람: 전교조 제7대 위원장 단독후보 김귀식 씨", 한겨레신문, 1997.3.14.

금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 누가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가.

3. 1 주력 부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자들이다. 거기에 현장 사서들이 간간히 끼이기도 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문헌정보학자, 그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을 전공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이다. 어쩌면 이들은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주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얼마나 많이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가.

통계 수치를 들이댈 필요도 없이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은 타 관중 관련 논문과 비교하면 매우 적게 나타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전공하는 학자군의 규모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문헌정보학계에 학교도서관을 전공하는 학자가 수적으로 적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현장의 낙후성과 취업 기회의 저조에 따라 학과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설강하지 않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의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학문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 상관 없이 위축되어 가는 것이다. 이 무자비한 자본주의적 경쟁의 논리는 학문 세계에도 예외 없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할 정도로 한 사회를 유지 발전 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영역이며 학교도서관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 지원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논리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연구 교육하지 않는다면 문헌정보학은 그 학문의 본질적인 사명을 방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필요와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면 현장의 낙후성에 상관 없이 혹은 그래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연구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문 후속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도 학교도서관을 전공으로 삼는 것을 무척 기피하고 있다. 그들도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선뜻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들이 속해 있는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집단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그 구성 인자들에게는 무척 의기소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는, 아니 이야기 해야하는 학자들은 크게 힘이 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논문을 정력적으로 생산할 의욕이 나지 않는 것도 자명한 이치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 특수도서관의 위세에 비하면 자기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보잘것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횟수는 자연히 감소하게 되고 마지 못해 이야기 해야하는 기회에 하게 되는 것이 실정인

듯하다. 그러나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가장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학교도서관이 그 가치와 필요성에 비해 피폐해 있다면 장래는 낙관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힘있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자와 현재의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학자군을 강화하는 노력이 학계 전반에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강단 연구자들과 같이 학교도서관 연구의 주력 부대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당연히 현장 사서교사들이어야 한다. 전자가 학교도서관 밖에서 관찰하고 주로 말과 글을 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후자는 학교도서관 안에서 몸으로 문제와 싸워 나가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주체는 괴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입장을 유지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즉, 강단 연구자는 현장 친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현장 사서교사는 강단 친화적인 입장에서 연구자들의 이론을 포용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독백의 행위가 아니고 대화의 행위가 되는 것이며 그들의 언어는 방언과 암호가 아니라 평이한 일상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한 수준의 주력 부대 형성을 위해서 현장 사서교사

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말과 글로 풀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일차적으로 사실적이며 평이한 언어로 학교도서관 현장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 주어야 강단에서 현장 지향적인 연구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력 부대의 세력은 양적 질적 면에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3. 2 이야기 판 넓히기

그럼 어디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가. 대체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 매체에서 이야기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이 매체들의 독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 사람들이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이 교육이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구조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학교 현장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할 때 학교도서관 이야기를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 사람들 귀에만 대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물론 그것이 전혀 무용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교육 체제와 학교 경영의 틀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면 이 이야기는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집단과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효과 여부를 떠나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안되는 이야기들이 모두 문헌정보

학계와 도서관계의 매체에 집중되어 왔다. 방향이 맞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다른 방향에 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계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물론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분야의 글을 다른 분야의 매체에 실는다는 것이 배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대다수의 글들은 우리 분야의 학자들과 현장인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글의 성격상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글도 그런 범주에 포함되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다양화하고 영역을 확대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글이 교육학 분야와 교육계의 각종 간행물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간행물에도 나타나야 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보고서류에도 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래 교육계의 신문이나 연속간행물에 학교도서관 관련 글이

간간이 나타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²⁵⁾. 이 문제는 사실 학교도서관 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문헌정보학의 모든 글쓰기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3. 3 공동 전선의 구축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학계와 현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이야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며 그렇게 해서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같이 이야기 해 줄 동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그 동료를 등에 업고 이야기 하고 때로는 그 동료의 목소리에 내 목소리를 올려 놓는 식으로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이 동료는 정부 관료가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집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 사회의 성숙과 함께 다양화 되는 각종 시민단체일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교사들일 수도 있다.

25) 최근 교육 분야의 간행물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관련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함께하는 국어교육, 24호(1995.6):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허병두, 13-34쪽)", "학교도서관 운영기(정윤혜, 35-49쪽)", "전담 사서교사의 도서관 운영 사례(편집국, 50-61쪽)"; 중등 우리교육, 1996년 4월호: "이제는 바뀌어야 할 학교도서관(신수진, 38-44 쪽)", "수업 개선위한 정보센터-어느 사서교사의 도서관 일기(이덕주, 44-47쪽)", "교양의 마지막 보루, 실업계 학교도서관(이기세, 48-51쪽)", "고서(古書)에서 CD롬까지-미국의 'SLMC'(송기호, 52-54쪽)", "교사 연구실로 발전되어야(이인석, 55쪽)"; 이덕주, "학교전산화는 '도서관 전산화'부터", 중등 우리교육, 1996년 7월호, 58-61쪽; 이덕주, "학교도서관과 결혼한 사서교사의 대모-숙명여고 박희 사서교사", 중등 우리교육, 1997년 3월호, 28-31쪽; 김용철, "교육논단-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화 시급", 한국교육신문, 1997.3.26.

26) 문헌정보학에서 글쓰기 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근 역음, 학술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1996).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996), 5-18

같이 이야기할 동료들을 포섭하는 것은 답론의 공간(매체)을 다양화 하는 것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문제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인 고리로 강조하고 인식시켜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전문직 단체나 시민 단체와 연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전략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방안은 현장 운동의 영역에서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단과 현장이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강단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주체를 선명히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체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며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도서관 담론이 교육이라는 거대한 영역과 분리된 채 형성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야기의 주체도 장소도 동료도 이런 원리에 바탕해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전략 전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엇을 이야기의 소재로 잡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분석하고 해석해 내며, 어떤 형식의 문제를 통해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로 테마선정의 문제, 연구방법의 문제, 글쓰기 스타일의 문제에 관한 전술이 나오는 것이다.

4.1 우리 현장에서 건져 올리는 논제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문제를 이야기 하는 연구문헌들은 논제를 주로 어디에서 구해 올렸나.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논제를 건져 올렸는가. 아니면 어느 외국의 학교도서관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가상의 학교도서관을 설정하여 논제를 삼아 왔는가. 딱 부러지게 어느 쪽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건져 올린 논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간혹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피상적인 관찰과 상투적인 인식이 지배하고 있어 마치 외국의 어느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현장과 밀접해 있지 않은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빚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듣는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이야기 하는 사람처럼 피상적이고 허위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멋모르고 귀를 기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나 사서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인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논제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 이야기의 유용성은 따져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국어로 한국땅에서 이야기 하면서 우리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유희나 고급스러운 여가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은 처참하게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 한다는 논제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온전하고 현란할 수 있단 말인가. 간판만 달고 먼지에 덮인채 잠들어 있는 도서관이 대부분인데 어찌 멀티미디어센터만을 이야기하고 인터넷만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손으로 꼽을 정도의 사서교사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서관 현장을 두고 어떻게 첨단정보센터를 운운하고 교육매체센터를 거론할 수 있단 말인가. 색이 바래고 먼지가 두껍게 앉은 전집류만 수북히 쌓아 놓은 장서를 두고 어찌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원격 접근에 의한 도서관 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도서구입비 지출하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첨단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면 무엇하고 독서교육을 강조하면 무엇하겠는가. 학교에서 가장 음침하고 외진 곳에 그것도 큰 자물쇠로 잠겨진 도서관을 두고 첨단의 교육매체센터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현장은 비틀어지고 깨어져 방치되고 있는데 논제는 왜 하나같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발

전적인 기대를 가지고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계몽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이긴 하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논의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한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기 십상인 것이다. 화려한 미래도 첨단을 향한 당찬 꿈도 모두 현장이 처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 덮어 쓴채 잠들어 있는 장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논제, 운영 주체 없이 애물 단지로 취급되는 학교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드러내는 논제, 본질에 걸맞는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사서교사의 일상을 다루는 논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수업 개선이 어렵게 되어 있는 학교 현장의 여러가지 난맥상을 고발하는 논제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이 현단계 학교도서관 연구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차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들은 외면한채 화려하고 첨단적인 논제만을 선호하고 있으니 결국 학문과 현장 모두에게 무익한 행위만 일삼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최성진은 이 나라의 도서관 봉사 발전에 관련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논문이 어디에 필요한지 반문하면서 문헌정보학자들이 외국의 선진이론을 따라 다니며 시간과 자원을 탕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²⁷.

미국에서 논의하는 논제들은 미국의 학교도서관 현장을 근거로 하여 논의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설마 미국의 학교도서관

27)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준회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3, 101쪽.

현장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제를 붙들고 씨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거기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현장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힘을 다 모아도 어려운 판이다. 그런데 그 힘들을 우리 현장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밀접한 상관도 없는 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소진해 버려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논제 선정이 우리 현장에 적실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현장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²⁸⁾. 이와 같은 경향은 사실 우리 학계, 넓게는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허위 의식과 현실 인식의 피상성 그리고 서구추수적인 삶의 양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어려운 남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쉬운 우리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는 생소하고 버겁게 느껴져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몰입해 보면

모두 우리 언어로 풀어낼 수 있고 그렇게 풀어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2 우리 현장의 현단계가 요구하는 연구 방법

우리 현장에 근거하여 논제를 채택하는 것과 연계하여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의 전술은 연구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예리한 눈과 감각으로 우리 현장의 문제를 논제로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채용하지 못한다면 논제 선정의 노력까지도 허사로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제 선정과 연구방법의 채용은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전략 전술인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유용성을 확보해 주고 설득력을 높여 주는 것이 바로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문제를 들여다보는 눈이며 문제를 묘사하는 입이라고 할 수 있다. 사각의 통을 이용해 세상을 보면 사각의 풍경이 보일 것이고 원통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둥근 모양의 풍경이 보이듯이 어떤 연구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들여다 보는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다양성의 차원에 한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정확성과 효율

28)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7쪽.

성 차원의 문제라면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구방법이 논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전제이다. 사람 몸에 맞추어 옷을 고르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 옷을 골라 놓고 몸을 끼워 맞추는 것이 타당한 일은 아니라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학교도서관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장의 현실에 맞는 연구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명제를 세울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학교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문헌들은 우리 현장의 단계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단순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답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 그것이 어떤 경향을 보였는지 돌아보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방법의 현실 적합성 문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학교도서관 연구문헌에서 나타나는 연구방법은 크게 두갈래의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문헌에 주로 의존하는 연구이고, 둘째는 서베이 방법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이런 경향의 연구방법이 과연 우리 지형에 맞는 것일까. 우리 학교도서관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제를 잘 분석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일까.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단 외국문헌에 나타나는 이론적 근거가 우리 현장에 그대로 들어 맞을 리 없다. 왜냐하면 현장의 발달 단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통적인 도서관을 완성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사회발달에 따라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를 거쳐 가고 있는 외국의 학교도서관을 연구한 결과로 생산된 외국의 문헌을 우리 현장을 이야기하는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다 보니 현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현란한 언어와 화려한 수사를 쏟아 놓는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²⁹⁾.

현장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측정하는 도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지형을 측정하는 데는 다른 잣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평평하고 규격화된 지형을 재는 데는 곧은 자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굴곡이 심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지형을 재기 위해서는 곧은 자가 필요하지 않고 유연한 자가 필요하며 다양한 치수의 자가 필요할 것이다. 지형을 무시하고 동일한 자로 측정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신뢰할 수

29) 우리 현장의 문제에 맞는 이론과 연구방법에 근거한 주제적인 학문을 주창하는 담론은 한국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령 사회학의 김진균, 신용하, 행정학의 박동서, 백완기, 안병영, 이종범, 교육학의 이종각, 한준상, 김인회, 이규환, 언론학의 이효성, 법학의 배종대, 차용석, 정치학의 정해구, 진덕규, 인류학의 조혜정 등이 이런 담론을 이끄는 주요 학자들이다. 이는 사회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회과학에서 그 사회에 적절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연구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지형이 다른 우리 학교도서관을 두고 외국의 문헌과 외국에서 이용하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재고 세고 그리려고 했다면 어리석은 시도였음에 틀림없다. 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정근은 이러한 연구방법 활용의 오류가 우리 학계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 ‘우리 분야의 학술논문을 읽으면 실감이 없다는 것이다. 온통 미국 이야기뿐인데다가 재고(measuring), 세는(counting) 수치놀음이라는 것이다. 이 땅에는 도서관이 얼마 없고 책도 얼마 없으며 사서 수도 많지 않은데 말이다. 그런데도 허구헌날 재고 세기만 한다는 것이다. 카이자승이 어떻게 0.01의 오차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다.³⁰⁾ 창고같은 곳에 먼지 덮인채 쌓아 놓고 이용시키지 않는책이 오백권이면 무엇하고 오만권이면 무엇하겠는가. 방과후 학생들 잡아 놓고 강제로 자습시키는 도서관이 백평이면 무엇하고 만평이면 무엇하겠는가. 또 거기에 좌석이 백개면 무엇하고 천개면 무엇하겠는가.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신문이나 주간지만 뒤적이다 가는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횟수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하나 하나의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 이야기에는 그런 수치가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 가령 5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매월 신간을 들여 오고 매년 2-3%의 장서를 제적하는 도서관 정도라면 장서 데이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수시로 도서관을 이용해 수업을 준비하고 사서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때의 서비스 횟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 만족도란것도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고 재는 방법이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볼때 우리 학교도서관에는 지금 그러한 방법이 대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방법 한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구방법이란 지형의 특수성에 따라 선택되 다양하게 채용하여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단계의 특수성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례연구법(case study research), 문화기술법(ethnography), 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 실천연구(action research)등을 오히려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³¹⁾ 가령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어느 학교도서관에 뛰어 들어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보고하는

30) 김정근,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대화의 학문인가? 독백의 학문인가?”, 도서관계, 1997.1·2, 4쪽.

31) 김정근, 위의 글, 7쪽.

참여연구와 사례연구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도서관 문제를 밀착된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고 문제의 구조와 규모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³²⁾ 우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외면한채 외국 문헌만 들여다보고 화려한 이론을 제시하는 방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연구방법 한 가지만을 제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로 들어서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에 관한 몇가지 원론적인 전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연구방법은 현장의 단계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방법은 논제의 성격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셋째, 단일의 연구방법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 3 논제와 연구방법에 걸맞는 유연한 글 쓰기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전술은 글쓰기 전술이다. 이야기를 하는 화법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쓰기 문제는 논제 선정과 연구방법 채택에 종속되는 면이 있는

부차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연구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 글쓰기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먼저 이 글쓰기 전술에서는 형식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 논문이라면 으레 갖추어야 된다고 통념화되어 있는 형식과 체제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술연구에서 보여주는 형식적 엄숙주의와 과학주의의 도그마라는 원천적인 관념을 탈피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야기 하려는 내용에 상관 없이 기성의 형식을 고려하게 되고 현학적인 어투와 피상적인 고급 언어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결국에는 적절하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논제와 연구방법에 따라 문학적인 화법을 쓸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느낌과 감정이 강하게 반영된 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아닌 법으로 논문의 형식과 언어와 어투를 정해 놓는다는 것은 진지한 탐구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며 순수한 학문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형식의 부담과 문체의 부담 없이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사실을 건져 올릴

32) 이와 관련하여 김정근과 이용재가 제안하는 문화기술적 방법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이끌어 내고 한국적 상황의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24집(1996 여름), 107-161쪽

33) 학술 논문쓰기의 지나친 형식주의와 경직성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문헌정보학계 밖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논제이다. 이 분야의 담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논자와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민음사, 1996); 김정근,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1996);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신광 현, "대학의 담론으로서의 논문-형식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 사회비평 14호(1996), 177-200쪽.

수 있으며 거기에서 진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다³³⁾.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을 둘러보는 사람은 누구나 울분을 터트리게 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다물곤 한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쓰게 되면 울분도 의지도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논문이란 모름지기 점잖은 어투로 미리 정해진 형식을 따라 써야 한다는 기성의 관념 앞에서 연구자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도서관의 현실이 아무런 울분 없이 감정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글쓰기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의 굴곡이 경직된 글쓰기로 묘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유연한 묘사와 감정 섞인 문장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작거나 커서 신을 수 없는 신발은 일단 벗어 두는게 현명한 처사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든지 아니면 차라리 맨발로 달리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이다.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직되고 정전주의(正典主義)적인 글쓰기는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이 외에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누구도 읽으려 들지 않는 논문을 생산하고 만다는 것이다.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료 학자들도 별로 읽으려 들지 않는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지 못해 필요한 글만 읽는 것이 현실이다. 형식주의의 제의로 점철된, 마치 잘 짜여진 학예회의 시나리오 같은 논

문은 흥미가 없을뿐만 아니라 어렵기도 하여 읽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논문이 함유하고 있는 형식과 체제, 현학적인 언어와 화려한 수사를 학자의 권위를 세우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읽혀지지 않는 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글이 무엇에 소용된다는 말인가.

학교도서관의 어두운 서고, 그 안을 가득 채운 먼지와 낡은 책, 책지기나 자습감독관으로 취급 받는 사서교사의 일상, 그 왜곡된 공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식과 문체와 언어의 구속도 벗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문헌 한 권 보다 시 한 편이 더 적절하게 현장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건 당연히 논문과 같은 가치와 권위를 가지는 글로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

5. 나오며

처음의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세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도서관을 삶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적이며 주요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서관이라는 삶의 요건이 이질적인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아의 일부로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체득한 도서관 현상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도서관 현상이 유유히 삶 속에 구현되기까지는 수십 수

백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기나긴 역사의 유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러운 현상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학교도서관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계와 수준은 서양 선진국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분명 우리 도서관도 나름의 역사와 길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학교도서관만의 역사와 길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 땅의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전략과 전술을 배태하는 세가지의 큰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학교도서관 문제는 교육이라는 상위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 고려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여타의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조짐에 민감하게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구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학교도서관이 처한 현장의 현단계를 직시하고 거기에서 모든 전술을 개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현상의 특징중 간과할 수 없는 한가지는 발전의 정도에 있어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는 일률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을 저발전의 상태로 규정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학교도서관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적인 발전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 땅에 학교도서관이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며 그 미완의 역정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민음사, 1996.
 김용철. 교육논단 —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화 시급. 한국교육신문, 1997. 3. 26.
 김정근 편.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1996.
 _____.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회의 역할 —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996, 5-18쪽.
 _____.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대화의 학문인가? 독백의 학문인가?. 도서

- 관계, 1997. 1·2, 3-7쪽
-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24집(1996 여름), 107-161쪽.
- 김종석. 수업개선 도울 매체전문직 필요. 한국교육신문, 1996. 10. 30.
-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3). 제4차 대통령 보고서, 1996. 8. 20.
- 손병길. 교육을 생각하며 — 교육정보화의 바른 길. 한겨레신문, 1996. 5. 27.
- 송기호. 고서(古書)에서 CD롬까지 — 미국의 'SLMC'. 중등 우리교육, 1996. 4, 52-54쪽.
- 신광현. 대학의 담론으로서의 논문-형식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 사회비평, 14호 (1996), 177-200쪽.
- 신수진. 이제는 바뀌어야 할 학교도서관. 중등 우리교육, 1996. 4, 38-44쪽.
- 이규억. 시평-떨어져가는 정보화. 한겨레신문, 1996. 5. 4.
- 이기세. 교양의 마지막 보루, 실업계 학교 도서관. 중등 우리교육, 1996. 4, 48-51쪽.
- 이덕주. 사서교사 배치에 관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해설. 도서관계, 1997. 3, 28-30쪽.
- _____. 수업 개선위한 정보센터 — 어느 사서교사의 도서관 일기. 중등 우리교육, 1996. 4, 44-47쪽.
- _____. 학교도서관과 결혼한 사서교사의 대모-숙명여고 박희 사서교사. 중등 우리교육, 1997. 3, 28-31쪽.
- _____. 학교전산화는 '도서관 전산화'부터. 중등 우리교육, 1996. 7, 58-61쪽.
- 이상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익사하지 않으려면. 말 1996. 8, 224-228쪽.
- 이원영. '열린 교육'의 열쇠. 한국교육신문, 1996. 5. 22.
- 이인석. 교사 연구실로 발전되어야. 중등 우리교육, 1996. 4, 55쪽.
- 정영숙.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소비자학연구, 3권 2호 (1992. 11), 1-14쪽.
- 정윤혜. 학교도서관실 운영기. 함께하는 국어교육, 24호(1995. 6), 35-49쪽.
-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조환규. 연필과 컴퓨터. 녹색평론 제28호 (1996. 5-6), 20-27쪽.
- _____. 인터넷과 기술의 남용 — 무엇이 살아 있는 교육인가. 교수신문, 1996. 5. 9.
- _____. 책과의 대화 — 클리포드 스톨의 <허풍떠는 인터넷>. 부대신문, 1996. 6. 10.
-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3, 81-112쪽.

- _____,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7-14쪽.
- 편집국. 전담 사서교사의 도서관 운영 사례. 함께하는 국어교육, 24호(1995. 6), 50-61쪽.
- 허병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함께하는 국어교육, 24호(1995. 6), 13-34쪽.
- 課外-성적 비례 안한다. 중앙일보, 1996. 1. 10.
- 교육부 '과외비 절감 대책' 의미 — 근본 치료 외면한 '현실방치론'. 한겨레신문, 1997. 5. 13.
- 교육초점: 공부+놀이=열린교육. '달힌 교실'에 새바람. 한겨레신문, 1994. 11. 8.
- 기획특집: 정보화운동의 거품현상을 우려한다. 교수신문, 1996. 7. 1.
- 대학정론 — 우려되는 정보화거품. 교수신문, 1996. 6. 17.
- 모르면 죽는다? '정보화 거품 지나치다. 뉴스플러스(1996. 5. 9), 26-31쪽.
- 사교육비 1천억 육박. 한겨레신문, 1996. 4. 25.
- 스스로 공부하는 '열린교육' 흥미. 부산매일신문, 1995. 12. 28.
- 올 과외비 무려 15조원. 한겨레신문, 1997. 5. 12.
- 올 사교육비 11조 9천억 추정 가구당 월 18만 3천원. 한겨레신문, 1997. 5. 19.
- 초등생 영어과의 53만명이 받는다. 한겨레신문, 1996. 9. 22.
- '탁상공론' 과외비 대책(사실). 한겨레신문, 1997. 5. 13.
- 학교教育 염증 '代案학교' 는다 — 획일적 주입식 벗어나 참 삶 배움터 마련. 중앙일보, 1996. 5. 19.
- 학생위한 전교조로 거듭날 터 — 한겨레가 만난 사람: 전교조 제7대 위원장 단독후보 김귀식씨. 한겨레신문, 1997. 3. 14.
- 〈한겨레 창-열린공동체〉, 암기 — 짝기교육 '수능에 무능'. 한겨레신문, 1996. 11. 22.
- 〈한겨레 창 — 책과 사람〉, 논술시험, 철학이 없다. 한겨레신문, 1997. 1. 14.
- Olson, Renee. "When it comes to technology , The Postman Always Thinks Twice." School Library Journal, May 1996, 18-22쪽.